

##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wo Type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Dependency,  
Self-Criticism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박성연(Seong Yeon Park)<sup>1)</sup>

이은경(Eun Gyoung Lee)<sup>2)</sup>

송주현(Ju Hyun Song)<sup>3)</sup>

Bart Soenens<sup>4)</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fluences adolescents' depressive feelings through personality features of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Participants were 315 high school students ( $M=16$  years)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tapping two type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tudent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Both girls and boys perceived equal levels of maternal and paternal separation-anxious psychological control. Boys perceived higher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of fathers than mothers; girls perceived equal levels of maternal and paternal achievement-oriented control.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personality features, and depressive symptoms were equivalent for both mothers and fathers and for both boys and girls. Results confirmed that separation-anxious and achievement-oriented control have negative effects

\* 본 연구는 벨기에 Bart Soenens 교수(University of Ghent)와의 국가 간 비교연구의 일환임.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및 아동학협동과정 교수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sup>3)</sup>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sup>4)</sup> Professor,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Ghent, Belgium

Corresponding Author : Park, Seong Yeon, Dept.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on adolescents' adjustment through differential pathways;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respectively.

**Key Words :** 심리적 통제행동(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 자아비난(self-criticism), 의존심(dependency), 우울(depression).

## I. 서 론

청소년기는 자녀가 점차 부모로부터 벗어나면서 그 활동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걱정이 많은 시기이고, 청소년으로서는 또래집단과의 소속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한편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흔히 자신감 결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나 자살과 같은 정서 사회적인 행동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문제들 중 특히 우울감은 부모와의 관계를 토대로 한 과거나 현재의 양육자와의 경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Blatt, 2004).

부모의 양육행동은 여러 가지 유형이나 차원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왔으나 크게는 지지(support)와 통제(control)로 분류된다. ‘지지’는 애정, 온정, 수용, 반응적 행동 등 단일구성요소로서, 일관성 있게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반면에 ‘통제’는 복잡한 구성요소를 지녀 훈육, 요구, 강압, 죄의식 유발, 감독, 처벌, 제한, 애정철회 등 다양한 차원으로 개념화되며, 따라서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비일관적으로 보고되어 부모의 통제적 행동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Barber, 200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통제행동을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행동적 통제란 아동의 행동이나 활동에 대해 부모가 감독함으로써 아동을 통제하는 것인 반면,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욕구를 무시한 채 독립심의 표현이나 자율성을 차단하는 등 심리적으로 조정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Barber, 2002). 이러한 통제행동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이미 Schaefer(1965)가 제안한 수용/거부, 심리적 통제/심리적 자율, 엄격한 통제/느슨한 통제의 세 가지 양육행동차원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왔던 심리적 통제에 대한 관심은 심리적 통제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Steinberg(1990)에 의해 새롭게 촉발되었다. 즉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부모의 지지행동과 마찬가지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한편 (Barber, Stoltz, & Olsen, 2005; Stoltz, Barber, & Olsen, 2005), 심리적 통제는 자율성 부재 등 아동의 심리적 기능을 저해한다(Steinberg, 1990).

더욱이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로부터 점점 독립적이 되어가는 청소년기에는 심리적인 통제과정이 청소년의 발달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Collins, 2005), 부모의 통제내용이나 통제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도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 지나친 행동적 통제는 물론 심리적 통제를 가하게 된다. 특히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데 있어 그 어떤 양육행동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어(Stoltz et al.,

2005), 심리적 통제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관심은 1990년 이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Barber & Harmon, 2002). Barber 등(2005)에 의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죄의식을 유발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행동 또는 자녀와의 애착이나 유대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행동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행동은 아동의 불안이나 우울감 등 내면화문제 및 약물남용이나 일탈행동 등 문제행동과 관련이 된다.

한편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심리적 통제를 단일차원으로 연구해온 것(예 : Barber, 1996)과 달리, Soenens와 Vansteenkiste(2007)는 심리적 통제를 분리불안(separation-anxious)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적(achievement-oriented)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불안을 느끼게 됨에 따라 행하게 되는 통제행동이다. 반면에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태도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향 및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Soenens와 Vansteenkiste(2007)는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는 아동은 부모로부터 벼림을 받을까봐 두려워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거나 또는 스스로 자기자신을 비난하는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울을 겪게 된다는 Blatt(2004)의 이론을 토대로 심리적 통제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의존심과 자아비난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였다. 즉 분리불안에 의해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는 청소년들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그러한 행동에 대해 간접적인 행동을 하고 자녀에 대해 소유욕과 과보호행동을 나타냄으로써 자녀에게 의존적인 성격을 갖게 한다. 그러나 성취지향적 통제를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게 되고 자

녀의 성취정도가 자신이 설정한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간접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기비하적이거나 자아비난적인 성격적 특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벨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결과, 부모의 성취지향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아비난 특성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한편,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의존심과 관련됨으로써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Soenens, Vansteenkiste, Duriez와 Goossens(2006)에 의해서도 확인된바 있으며, 이 두 가지 심리적 통제는 모두 청소년의 복지감이나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한 맥락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tle-Haring, Brucker, & Hock, 2002; Luyckx, Soenens, Berzonsky, Vansteenkiste, & Goossens, 2007).

또한 Soenens와 Vansteenkiste(2007)는 부모의 성 및 청소년의 성에 따라 심리적 통제정도가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즉 대체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분리불안으로 인한 통제를 높게 나타냈으며, 아버지는 성취지향적인 통제를 더 많이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분리불안 통제를 보인데 비해 어머니는 아들과 딸에게 비슷한 정도로 분리불안 통제를 보였다. 성취지향적인 통제에서도 차이를 보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많은 성취지향적인 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분리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통제나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행동은 특히 청소년의 정서적, 또는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육행동임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

으며, 청소년의 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행동은 성에 따른 차이 외에도 문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Soenens와 Vansteenkiste(2007)는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서구의 경우는 성취지향적인 통제가 강한데 비해 집합주의적인 특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분리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통제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교적, 집합주의적 가치관과 높은 교육열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되는데 대한 분리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통제는 물론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도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통제 정도에서 부모 및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영향은 서구와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된다. 특히 자식과의 정서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더욱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으며(Kim, Park, Kwon, & Koo, 2005), 그 어느 나라 부모보다 교육열이 높아 독립된 개체로서의 행동을 갈망하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통제행동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어머니는 아들과 딸에 대해 비교적 동등한 기대를 하고 있어(Park & Belsky, 2002), 아들에게 성취지향적인 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구연구(Soenens & Vansteenkiste, 2007)와는 달리 청소년의 성에 관계없이, 또는 딸에게 더 성취지향 통제를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성고정관념이 어머니보다 강하여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성취지향적 통제를 할 것이며, 어머니보다 분리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통제는 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청소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와 달리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여건이나 교육여건상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된 한 개체로 인식되기에는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적어도 자식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녀의 연령이나 성장에 따라 통제방식을 변화시켜가는 대신, 학업성취, 친구관계 앞으로의 직업 등 자녀의 생활 전반에 걸쳐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또한 자녀들이 독립해야 할 시기에도 여전히 애착을 강요하거나 지나친 통제나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청소년 초 중기에 있는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학업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정체감을 찾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구와 부모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되는 한편 부모의 여러 가지 통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구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부모의 분리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통제 정도가 심할수록 의존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한편,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가 강할수록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 되거나 자신감이 결여됨으로써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둔 연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방식이 청소년의 정서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윤주(2004)는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일반적인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김희영과 박성연(2008)은 어머니의 완벽주의로 인한 심리적 통제가 5-6학년 남녀 아

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지인과 박성연(2008)은 어머니의 분리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통제가 남녀 청소년의 독립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심리적 통제에 관한 서구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리적 통제의 한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 부모의 성에 따른 차이나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정서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Soenens와 Vansteenkiste(2007)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분리불안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정도는 부모의 성 및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른가?

- <연구문제 1> 부모의 분리불안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정도는 부모의 성 및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른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분리불안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각각 청소년의 의존심, 및 자아비난을 매개로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P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류층 가정 청소년 315명(남 : 146명; 여 : 169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6.1세( $SD=.70$ )이었으며, 청소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각각 47.2세( $SD=3.15$ )와 44.5세( $SD=3.01$ )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질문지는 Soenens 와 Vansteenkiste(2007)가 제작한 심리적 통제척도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통제척도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SPC : Separation-Anxious Psychological Control)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APC :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척도는 청소년 보고용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청소년에게 대하는 행동에 관해 그 일치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각 심리적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불리불안 심리적 통제 문항의 예로는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어머니(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내신다’,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어머니(아버지)와 함께 즐기던 것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를 비난하신다’ 등을 들 수 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문항은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나에게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실수를 하면, 실망스러워 하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 각각 1개씩을 제거한 후 각 9문항씩 총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통제가 각각  $\alpha=.86$ ,  $\alpha=.85$ 로, 어머니의 경우는  $\alpha=.92$ ,  $\alpha=.90$ 로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의존심과 자아비난

청소년의 의존심과 자아비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latt, D'Afflitti와 Quinlan(1976)이 개발한 청소년용 DEQ-A(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Adolescent Version)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존심과 자아비난, 효능감의 3개 하위요인 총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예 : 각 요인별 문항내적일치도=.90, .82, .79)가 입증된 바 있다(Blatt, Schaffer, Bers, & Quinlan, 1992; Zuroff, Quinlan, & Blatt, 1990).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의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의존심과 자아비난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DEQ-A는 Priel, Besser와 Shahar(1998)의 기준에 따라 각 문항을 Z 점수로 변환시킨 후 요인부하량에 기초한 각 요인점수를 산출하며<sup>1)</sup> 본 연구에서는 이중 의존심과 자아비난 요인점수만을 사용하였다.

### 3) 청소년의 우울감

청소년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adloff(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ES-D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동안 일어난 빈도를 '거의 없었음(0)'에서 '대부분 그랬음(3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0점부터 60점까지이며, 문항내용 중 긍정적인 문항은 역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많은 우울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내용은 '평소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던 일들이 신경에 거슬렸다', '우울하다고 느꼈다'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8$ 이었다.

1) DEQ-A는 복잡한 점수화 과정을 거쳐 3개의 요인점수가 산출되며, 본 연구에서는 공동저자인 Dr. Soenens의 도움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임의로 선정한 2개 고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본 연구자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교사들에게 실시방법을 설명을 드린 후 전달하였으며, 이후 담임교사는 편리한 시간에 집단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질문지는 배부 후 10일 이내에 총 350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 93%), 양친이 계시지 않는 가정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31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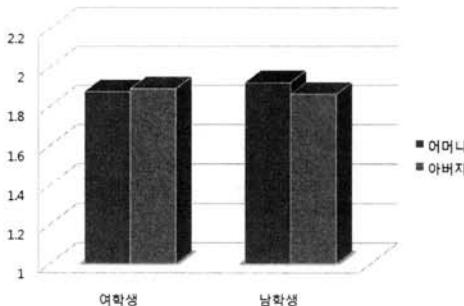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별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Repeated MANOVA), 상관관계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은 AMOS를 이용하였고, 기술통계치, MANOVA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SPSS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모형이 실제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X^2$ 값은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적합도지수로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TLI, CFI를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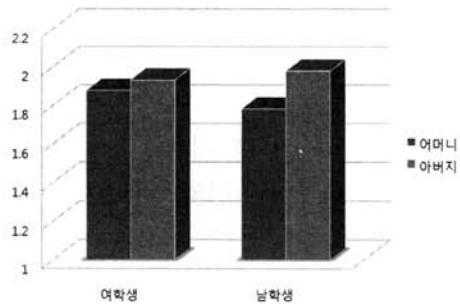
## III. 연구결과

### 1. 부모의 성 및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통제와 성취지향 심리



〈그림 1〉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그림 2〉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적 통제가 부모의 성 및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집단 간 변인으로, 부모의 성을 집단내 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종속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MANOVA를 실시하였다<sup>2)</sup>. 그 결과 부모의 성의 다변량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Wilks' lamda=0.94,  $F(3, 311)=7.06, p=.000, \eta^2=.06$ ], 부모의 성과 청소년 성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Wilks' lamda =0.96,  $F(3, 311)=4.24, p=.006, \eta^2=.04$ ]. 이에 따른 단변량 분석결과, 분리불안 통제는 부모의 성 및 청소년의 성,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각각  $F(1, 313)=.37, p=.54; F(1, 313)=.03, p=.87; F(1, 313)=1.10 p=.30$ ]. 즉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통제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남아가 어머니의 분리불안 통제를 다소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1, 그림 1 참조>. 한편,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 $F(1, 313)=.05 p=.82$ ] 부모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 $F(1, 313)=9.89, p=.002, \eta^2=.03$ ], 아버지 ( $M=1.96, SD=.79$ )가 어머니 ( $M=1.83, SD=.69$ ) 보다 성취지향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외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낮지만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 $F(1, 313)=3.52, p=.06, \eta^2=.01$ ], 딸에 대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아버지 ( $\bar{X}=1.93, SD=.76$ )와 어머니 ( $\bar{X}=1.88, SD=.70$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 $F(1, 168)=1.03 p=0.311$ ],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 $\bar{X}=1.99, SD=.81$ )가 어머니 ( $\bar{X}=1.78, SD=.68$ ) 보다 더 높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나타내었다 [ $F(1, 145)=9.93 p=0.002$ ] <표 1, 그림 2 참조>.

〈표 1〉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 ( $N=315$ )

	남학생		여학생		총	
	$\bar{X}$	SD	$\bar{X}$	SD	$\bar{X}$	SD
아버지의 분리불안	1.86	.65	1.88	.57	1.88	.61
어머니의 분리불안	1.92	.60	1.87	.56	1.90	.58
아버지의 성취지향	1.99	.81	1.93	.76	1.96	.79
어머니의 성취지향	1.78	.68	1.88	.70	1.83	.69

2) 이 과정에서 MANOVA를 위한 기본가정인 변량의 동질성과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Box's M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변량-공변량 행렬이 동질적 (Box's  $M=17.60, F=1.74, p>.05$ )임을 가정할 수 있었고, 종속변수들 간의 상호상관이 유의미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  $\chi^2=542.03, p<.001$ ),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의존심 및 자아비난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감 간의 상관관계

경로분석에 앞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서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부모 모두 분리불안 통제는 청소년의 의존심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어머니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의존심과 관련되었으나 아버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의존심과 무관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아비난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특히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부, 모 각각  $r=.19, p<.01; r=.20, p<.001$ ) 보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경우, 자아비난(부, 모 각각  $r=.31, p<.001; r=.28, p<.001$ )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두 가지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의존심과 자아비난은 모두 청소년의 우울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결국 부모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은 의존적이고 자아비난을 많이 하며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특히 부모 모두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

제는 의존심보다는 자아비난과 더 높은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2)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의존심과 자아비난을 매개로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경로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의존심과 자아비난을 매개로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chi^2(4)=1.56, RMSEA=.00, TLI=1.02, CFI=1.00$ ],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표 3, 그림 3>. 어머니의 경우 역시 경로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chi^2(4)=5.17, RMSEA=.03, TLI=.99, CFI=.99$ ],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표 3, 그림 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의존심( $\beta=.16, p<.01$ )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아비난( $\beta=.31, p<.001$ )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소년의 의존심( $\beta=.36, p<.001$ )과 자아비난( $\beta=.56, p<.001$ )

<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과 우울감간의 상관관계 ( $N=315$ )

	1	2	3	4	5	6	7
1. 아버지 분리불안							
2. 아버지 성취지향	.67***						
3. 어머니 분리불안	.43***	.33***					
4. 어머니 성취지향	.33***	.48***	.67***				
5. 청소년 의존심	.16**	.09	.17**	.15**			
6. 청소년 자아비난	.19**	.31***	.20***	.28***	-.02		
7. 청소년 우울감	.21***	.25***	.25***	.25***	.35***	.56***	

\*\* $p<.01$  \*\*\* $p<.001$

〈표 3〉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분석 모델 적합도

	$\chi^2$	df	p	RMSEA(90% 신뢰구간)	TLI	CFI
아버지경로	1.56	4	.81	.00(.00~.05)	1.02	1.00
어머니경로	5.17	4	.27	.03(.00~.95)	.99	.99

은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의존심( $\beta=.17, p<.01$ )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아비난( $\beta=.28, p<.001$ )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청소년의 의존심( $\beta=.36, p<.001$ )과 자아비난( $\beta=.56, p<.001$ )은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러나 부/모의 분리분안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비난에 이르는 경로( $\beta=-.07, p=.56 / \beta=.04, p=.71$ )와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의존감에 이르는 경로( $\beta=-.08, p=.50 / \beta=.02, p=.89$ ), 그리고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beta=-.03, p=.70 / \beta=.18, p=.05$ ) 및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 $\beta=.11, p=.21 / \beta=-.08, p=.35$ )가 우울감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표 7>에 제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홍세희, 2001)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분리분안 심리적 통제에서 의존심을 통해 우울감에 이르는 간접경로의 유의확률은  $p=.011$ 로 유의하였으며, 또한 아버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서 자아비난을 통해 우울감에 이르는 간접 경로의 유의확률도  $p=.018$ 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에도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에서 의존심을 통해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 $p=.011$ )와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에서 자아비난을 통해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 $p=.008$ ) 역

시 유의확률이 유의하게 판명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경로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통한 비제약 모델과 등가제약 모델 간에  $\chi^2$ 차이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경로의 경우  $\chi^2_{diff}(4)=2.1, p=0.71$ , 어머니 경로 역시  $\chi^2_{diff}(4)=3.4, p=0.5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본 경로모형에서 청소년의 성은 중재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유의미한 경로는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그림 3>은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 의존심 → 우울감으로, 부모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은 높은 의존심을 보이고 이로 인해 청소년은 높은 우울감을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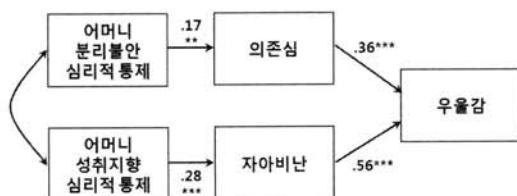
〈그림 3〉 아버지의 분리불안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

〈표 4〉 아버지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수(Parameter)	B	$\beta$	SE	C.R.	p
분리불안→의존심	.21	.16	.07	2.89	**
성취지향→자아비난	.37	.31	.07	5.74	***
의존심→우울감	.23	.36	.03	8.44	***
자아비난→우울감	.30	.56	.02	13.25	***

〈표 5〉 아버지 경로의 총효과 분해

경로	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리불안→의존심	.16	-	.16
분리불안→우울감	-	.06	.06
성취지향→자아비난	.31	-	.31
성취지향→우울감	-	.17	.17
의존심→우울감	.36	-	.36
자아비난→우울감	.56	-	.56



\*\*p&lt;.01 \*\*\*p&lt;.001

〈그림 4〉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

〈표 6〉 어머니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수(Parameter)	B	$\beta$	SE	C.R.	p
분리불안→의존심	.23	.17	.08	3.00	**
성취지향→자아비난	.39	.28	.07	5.25	***
의존심→우울감	.23	.36	.03	13.25	***
자아비난→우울감	.30	.56	.02	8.44	***

〈표 7〉 어머니 경로의 총효과 분해

경로	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리불안→의존심	.17	-	.17
분리불안→우울감	-	.06	.06
성취지향→자아비난	.28	-	.28
성취지향→우울감	-	.16	.16
의존심→우울감	.36	-	.36
자아비난→우울감	.56	-	.56

경험하게 된다. 〈경로 2〉는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자아비난 → 우울감으로, 부모가 성

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은 자아비난을 많이 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더 많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Soenens와 Vansteenkiste(2007)의 심리적 통제유형 분류에 근거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행동을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부모의 성 및 청소년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의존심이나 자아비난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남녀 청소년 315명으로 평균연령은 16.1세였으며, 본 연구자료는 청소년이 보고한 질문지에 근거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다변량 분석결과 부모의 성의 다변량 효과가 나타나 청소년들은 대체로 어머니는 분리불안으로 인한 통제를 더 많이 하는 한편, 아버지는 성취지향적인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통제 각각을 살펴본 결과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슷하였으며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그러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정도는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높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부모의 성취지향적 통제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딸에 대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주의성향이 강한 서구에서는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는데 반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분리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할 것으로 본 Soenens와 Vansteenkiste(2007)의 예측과 다소 다르다. 그러나 어머니는 분리불안 통제를 많이 나타낸 반면, 아버지는 성취지향적인 통제를 많이 보였다는 그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경우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히 아들에게 높은 성취지향 통제를 나타낸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아들과 딸에 대한 성취지향적 통제행동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들과 딸에 대해 비교적 동등한 기대를 하고 있으며(Park & Belsky, 2002),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성취가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성취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아들보다는 딸에 대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및 딸의 완벽주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희영 · 박성연, 2008)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아버지들은 더 성유형화 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편, 여전히 자신의 대를 잇는 자식으로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서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남아 선호사상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어머니가 딸보다는 아들에게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를 훨씬 더 많이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러한

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두 가지 심리적 통제유형은 모두 청소년의 의존심 및 자아비난, 그리고 우울감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은 의존심이 높고 자아비난을 많이 하며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나 죄의식을 유발하는 양육행동 및 애정철회가 5-6학년 남녀 아동의 우울감이나 불안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는 김희영 · 박성연(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심리적 통제가 여러 문화권에서 청소년의 복지감이나 적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Baber et al., 2005; Blatt et al., 1976; Blatt, 2004; Shek 2007; Vansteenkiste, Lens, Soenens, & Luyckx, 2006; Wang, Pomerantz, & Chen, 2007)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분리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통제는 의존심과 관련이 있고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는 자아비난과 더 높은 관련을 나타낸 선행 연구(Soenens & Vansteenkiste, 2007)와 일치한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경로분석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의존심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는 반면, 자아비난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편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아비난과는 정적인 관련을 나타냈으나 의존심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각각 의존심과 자아비난을 매개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다.

우울감은 ‘벼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나약함, 또는 사랑받고 보호받고자하는 심리인 의존심과 열등감, 죄의식 및 무가치함, 또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못미침으로 인해 생기는 자아비난으로부터 생긴다(Blatte, 2004; Blatt et al., 1976).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요구인 독립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그에 대해 간접적인 행동을 하고 소유욕과 과보호행동을 나타내는 부모 즉, 분리불안 통제를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심을 기르게 되고, 나이가 우울감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자녀가 그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죄의식을 유발함으로써 자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자아비난의 성격적 특성을 지니게 되며 결과적으로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는 통제적 양육으로 인한 영향은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는 집합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관계성과 자율성간의 갈등이 개인의 복지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Markus & Kitayama, 2003)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이러한 경로는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또한 청소년의 성에 따른 경로의 차이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5-6학년 남아의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아의 우울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딸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 김희영·박성연(2008)의 연구 결과와 다르다. 반면에 Stoltz 등(2005)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행동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동성보다는 반대 성의 자녀에게 더 큰 것

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국 부모의 분리불안 통제는 청소년의 의존심을 발달시키게 되고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아비난 성향을 발달시키게 된다. 또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의존심을 매개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아비난을 매개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특히 자아정체감이 발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육행동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경로모형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횡단적으로 수집되었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행동을 청소년의 지각으로 측정하였다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같은 방법을 사용함에 따른 공유변량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평가자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횡단적 연구대신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 역동성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우선 우리나라 부모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행동 두 유형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서 구구에서 제안된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유형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 자신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부모로 인해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청소년에게 가하는 심리적 중압감이 청소년의 의존심이나 자아비난 성향 및 우

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부모는 물론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행동의 두 가지유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작업은 물론,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다른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심리적 통제행동에 관련된 선행변인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희영 · 박성연(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경로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1(3), 115-131.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 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이지인 · 박성연(2008). 어머니의 애착경험, 심리적 통제 및 청소년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3), 175-189.
- 홍세희(2001). 임상심리학의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한국 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pp.15-52).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Stolt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RCD*. Vol.70(4), serial No.282.
- Bartle-Haring, S., Brucker, P., & Hock, E. (2002). The impact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on identity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 439-450.
- Blatt, S. J. (2004). *Experiences of depression*.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tt, S. J., Schaffer, C. E., Bers, S. A., & Quinlan D. M. (1992).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1), 82-98.
- Blatt, S. J., D'A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Collins, A. (2005). Parsing parenting : Refining models of parental influence during adolescence. In B.K. Barber, H. E. Stoltz, & J.A. Olsen(Eds.),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RCD*. Vol.70(4), serial No. 282(pp.138-145). MA : Boston.
- Kim, U., Park, Y. S., Kwon, Y. E., & Koo, J. (2005). Values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54(3), 338-354.
- Luyckx, K., Soenens, B., Berzonsky, M., Vansteenkiste, M., & Goossens, L. (2007).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mensions of identity formatio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546-550.
- Markus, H. R., & Kitayama, S. K. (2003). Models of agency : Socio-cultural diversity in the construction of action. In V. Murphy-Berman & J. J. Berman(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 tion :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Perspectives on the Self, Vol.49(pp.1-57). Lincoln & Lond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Park, S. Y., & Belsky, J. (2002). South Korean mothers' westernization and orientation toward child inhibition as related to child behavior. *The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9, 57-65.
- Priel, B., Besser, A., & Shaha, G. (1998). *Israeli Adaptation if the DEQ : Psychometric Properties*. Unpublished Manuscript, Behavioral Sciences Department, Ben-Gurion University of Negev, Beer-Sheva, Israel.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hek, D. T. (2007). Perceived parental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 A replication. *Adolescence*, 42 (167), 570-574.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7). Distinguishing among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 Separation-anxious versus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 Assor(Chair), *Disentangling the Construct of Parental Control :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SRCD), MA : Boston.
- Soenens, B.,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6). IN search of the sources of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 The role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al maladaptive perfectionism.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 539-559.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Eds.). *At the threshold : The Developing Adolescent*(pp.255-276).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Stoltz, H., Barber, B., & Olsen, J. (2005). Toward disentangling fathering and mothering : An assessment of relative impor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026-1092.
- Vansteenkiste, M., Lens, W., Soenens, B., & Luyckx, K. (2006). Autonomy and relatedness among Chinese Sojourners and applicants : Conflictual or independent predictors of wellbeing and adjustment? *Motivation Emotion*, 30, 273-282.
- Wang, Q., Pomerantz, E. M., & Chen, H. (2007).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78, 1592-1610.
- Zuroff, D. C., Quinlan, D. M., & Blatt, S. J. (199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 65-72.

2008년 6월 11일 투고, 2008년 8월 20일 수정  
2008년 9월 5일 채택